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Qatargas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상 최대의 LNG선을 예약해 놓은 Qatargas가 용선 제공 선주들로부터 최종 기술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보도됨. 선주들은 이제 판매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는지 기다릴 차례라고 보도됨. Qatar Petroleum이 발표한 시간 계획에 따르면 판매 제안서 제출 시한은 7월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엘엔지, LNG 용선 입찰의 결승 후보로 선정

현대엘엔지해운이 스페인의 에너지 업체인 Repsol의 LNG선 용선 입찰의 결승 후보로 선정됐다고 보도됨. 노르웨이의 Knutsen OAS Shipping과 경쟁 중이라고 보도됨. 오퍼 유효 시한이 5월 1일이었던 점으로 보아 Repsol이 5월 초에 최종 용선 제공 선주를 선정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스크러버 생명력 질기다

Scrubber의 경제성은 여전히 선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도됨. 저유황유-고유황유 간 가격차가 정상 수준을 찾았다고 보도됨. 싱가포르 연료 시장에서는 HSFO가 톤당 388달러이며 초저유황유는 이보다 톤당 106달러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밥캣, 770억원 투입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증설

두산밥캣은 총 7천만 달러(770억 원)를 투입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스테이츠빌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힘. 두산밥캣은 꾸준히 늘고 있는 농업·조경용 장비(GME)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증설을 결정했다고 보도됨. 증설 작업은 오는 7월에 시작해 2022년 5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

Sinokor wins ExxonMobil aframax charters with STX newbuildings

장금상선(Sinokor)이 STX조선해양에 최대 4척의 109,000DWT급 아프라막스 탱커를 발주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장금상선은 슈퍼 메이저 ExxonMobil과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신조 계약은 해당 선박을 2023년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체결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Papua LNG to enter FEED in early 2022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Total사가 Papua LNG 프로젝트의 FEED(Front End and Engineering Design)계약을 2022년에, 최종투자승인(FID)를 2023년까지 한다는 계획을 공개함. COVID-19로 인해 지연된 해당 프로젝트는 최근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지연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